World Economy Today

KIEP
오늘의 세계경제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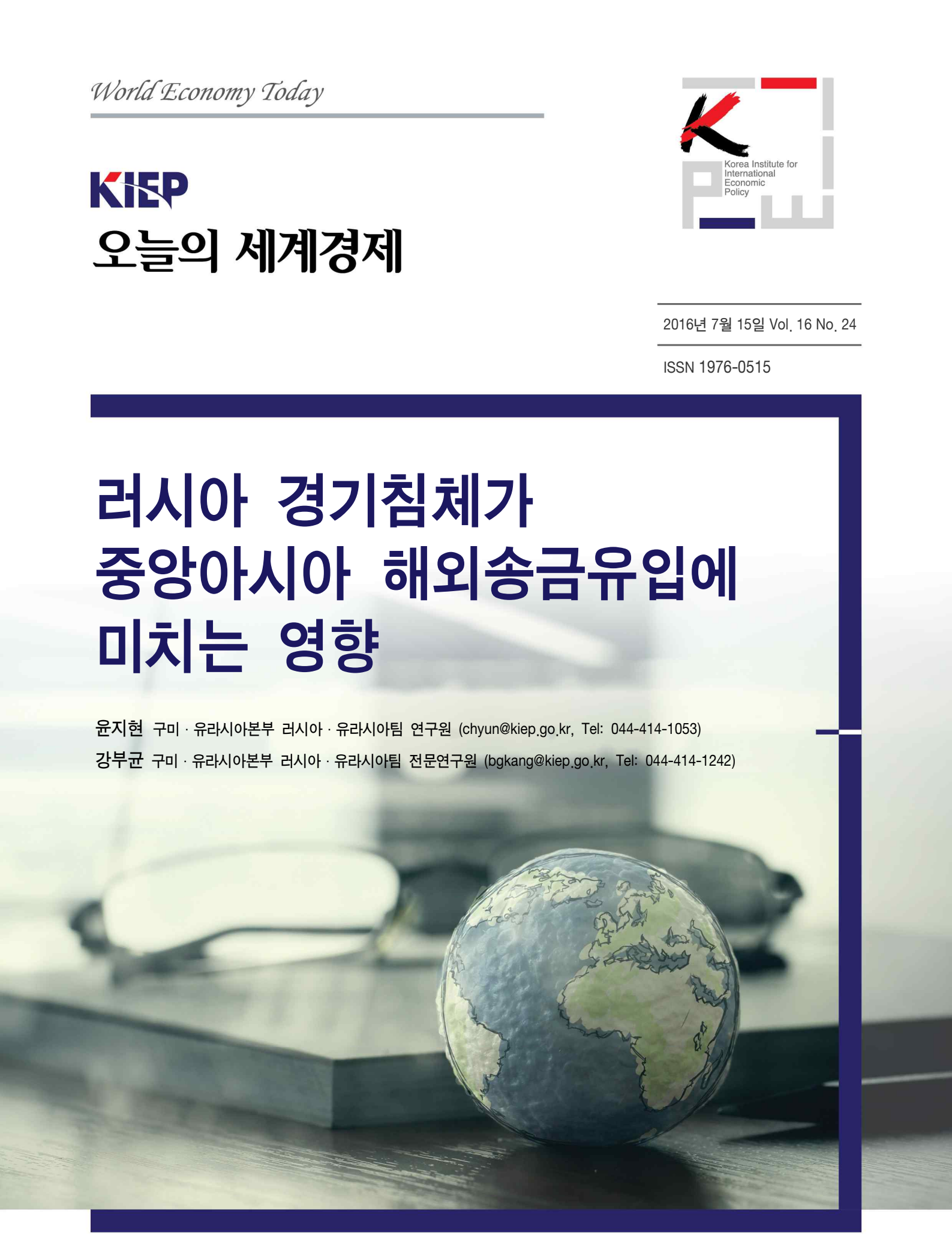
2016년 7월 15일 Vol. 16 No. 24

ISSN 1976-0515

러시아 경기침체가 중앙아시아 해외송금유입에 미치는 영향

윤지현 구미 · 유라시아본부 러시아 · 유라시아팀 연구원 (chyun@kiep.go.kr, Tel: 044-414-1053)

강부균 구미 · 유라시아본부 러시아 · 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bgkang@kiep.go.kr, Tel: 044-414-1242)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차 례

1.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와 중앙아시아
2. 러시아 경기침체와 이주법 개정이 이주노동자 송금에 미치는 영향
3. 해외송금액 감소가 중앙아시아 각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4. 과제와 시사점

주요 내용

▶ 해외송금은 중앙아시아 3개국(키르기스 공화국,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외환유입 원천으로 이들은 국제수지와 가계소득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의 송금유입에 의존하고 있음.

- 이들 국가의 송금액은 GDP의 30~50%에 달하며 이는 ODA, FDI 유입액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큰 규모임.
- 중앙아시아 3개국 이주노동자 가운데 60~80%가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송금하는 금액은 중앙아시아 3개국 전체 해외송금유입액의 90% 이상을 차지함.

▶ 러시아 경기침체와 루블화 가치폭락은 중앙아시아 3개국의 송금유입액을 크게 감소시켰으며, 러시아 정부의 이주법 개정에 따라 귀국하는 이주노동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2015년 말 기준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송금액이 전년대비 약 43.3% 감소하였으며 이는 동 국가들의 자국 화폐 평가절하, 가계소득 감소, 인플레이션, 투자 및 수출입 감소, 생활수준 저하 등으로 이어짐.
- 이에 더하여 2015년 1월 1일부로 러시아 이주법이 개정되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취업허가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지고 불법체류자 강제 추방이 증가함에 따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음.

▶ 중앙아시아 3개국은 이주노동자와 해외송금 활용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러시아로의 급격한 이주노동자 수 증가 → 국내 노동력 부족 → 산업발전 저조 → 노동시장 부재, 저임금 지속 → 귀국 유인 감소, 이주노동 선호로 이어지면서 이들 국가의 대규모 인적자본이 유출·손실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영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각종 교육 및 지원과 함께 이주노동자와 국내에 남겨진 여성·아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세계 14위의 송금지급국으로서 송금액의 개발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과 주요 송출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송금개발효과 극대화 사업에 주목해야 함.

1.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와 중앙아시아

■ 최근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액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보다 크고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보다 변동성이 적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해외송금의 개발효과가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해외 거주 인구가 많은 소규모 국가의 경우 송금액의 비중이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1990년대 말부터 해외송금 규모가 세계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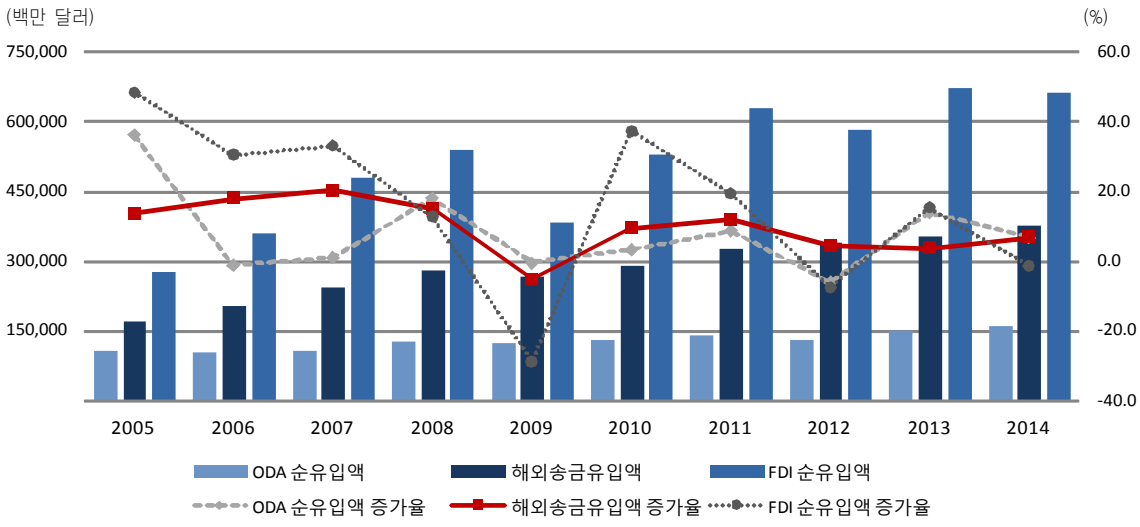
o 2014년 한 해 동안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 전체 송금액은 3,778억 달러로 지난 20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함.

- 대외유입의 1/3을 차지하는 해외송금유입액은 FDI보다는 작지만 ODA보다 크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그림 1 참고).

o 반면, FDI는 규모는 크지만 변동성 또한 매우 크며, ODA는 해외송금보다 규모가 작고 변동성은 큰 편이라 안정적인 대외유입원이라고 보기 어려움.[1)]

o 서비스·상품 수출소득과 FDI는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도시를 중심으로 소수의 기업들에 한하여 유입되며, ODA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여전히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를 가짐. 반면 해외송금은 많은 수의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분산되는 특징을 가짐.[2)]

그림 1. 개발도상국 FDI · 해외송금 · ODA 유입 추이(2005~2014)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이하 WDI, 2016. 5. 2)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해외송금은 주로 식료품, 의류와 같은 생필품 구입 및 주택 건설 및 보수(housing) 등 저소득층의 기초소비에 사용됨에 따라 절대적인 빈곤 감소에 기여하며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가, 기술이전 효과, 국내 금융시스템 및 이주 관련 산업 발달 등 긍정적인 개발효과를 가져옴.[3)]

1) 오윤아 외(2014),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14-17, p. 5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UNDP(2015), *Labour Migration, Remittances, and Human Development in Central Asia*, pp. 55-56.

o 2009년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송금액 비중이 10% 증가할 때 마다 GDP 성장률이 0.9~1.2% 증가하며, 송금액이 10% 증가할 때 마다 빈곤격차(poverty gap)가 0.7~1.4% 감소함.[4)]

■ 일부 중앙아시아[5)] 국가들에게 해외송금은 외환유입의 대표적인 원천으로 이들은 국제수지와 가계소득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發 송금유입에 의존하고 있음.

- 2014년 GDP 대비 가장 많은 송금액이 유입된 국가는 타지키스탄(43.0%), 키르기스 공화국(30.3%, 이하 키르기스), 네팔(29.2%), 통가(26.3%), 몰도바(26.2%) 등이며(표 1 참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GDP 대비 송금유입액이 16~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6)]

표 1. GDP 대비 송금액 비중(2007~2014)

(단위: %)

순위	국 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	타지키스탄	45.46	49.29	35.11	40.87	46.91	47.50	49.59	43.01
2	키르기스	18.51	23.80	20.94	26.41	27.57	30.75	31.06	30.29
3	네 팔	16.79	21.74	23.21	21.65	22.30	25.43	29.00	29.18
4	통 가	33.70	27.60	22.45	20.89	17.84	25.72	27.95	26.29
5	몰도바	33.88	31.18	22.04	23.25	25.85	27.27	27.45	26.17
6	라이베리아	8.39	6.84	2.17	2.43	23.29	29.72	19.70	24.60
7	아이티	20.77	20.92	20.89	22.25	20.64	20.43	21.07	22.69
8	감비아	6.97	6.71	8.86	12.15	11.93	15.45	19.98	22.46
9	코모로스	15.99	19.50	19.43	16.86	19.09	20.02	19.36	19.34
10	아르메니아	17.86	16.33	16.65	18.03	17.73	18.03	19.71	17.85
–	개발도상국[a] 평균	1.99	1.92	1.81	1.63	1.55	1.57	1.53	1.55

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데이터 부족으로 제외.
[a] 개발도상국은 세계은행 소득별 국가분류에 따라 저소득과 중간소득 국가를 포함.
자료: WDI(2016. 6. 14).

- 키르기스와 타지키스탄의 경우 2005년을 기점으로 해외송금유입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ODA나 FDI, 심지어는 수출소득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그 규모가 큼(그림 2 참고).

o 타지키스탄은 2002~14년 사이 해외송금유입액이 약 50배 증가하였으며 키르기스의 경우 60배 이상 증가함.

- 해외송금은 특성상 많은 수의 가계로, 특히 저소득층과 농촌지역으로 그 효과가 분산됨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3) 송금액의 긍정적 효과로는 1) 교육 및 의료(영양섭취, 건강향상 등)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가 2) 국내 노동력 공급 감소에 의한 민간부문 임금 상승 3) (전문기술 취득자의 귀국에 따른) 기술이전에 의한 실업 및 불완전 고용 감소 4) 인프라, 통신, 금융시스템(금융 서비스 접근성 증가, 국내 송금 규제 간소화, 국내 은행 경쟁력 강화) 부문 발달 5) 마이크로 파이낸스(Micro-finance) 및 소기업 자금 기반 강화 6) 이주 산업(IP-phone, 인터넷 카페, 환전소, 여행사, 브로커 등) 발달 등이 있음(Irina Malyuchenko, "Labour Migration from Central Asia to Russia: Economic and Social Impact on the Societies of Kyrgyzstan, Tajikistan, and Uzbekistan," Central Asia Security Policy Briefs #21, 2015. 2).

4) Vargas-Silva *et al.*(2009. 12), "Remittances in Asia: Implications for the Fight against Poverty and the Pursuit of Economic Growth," ADB, 1998~2007년 약 20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

5)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공화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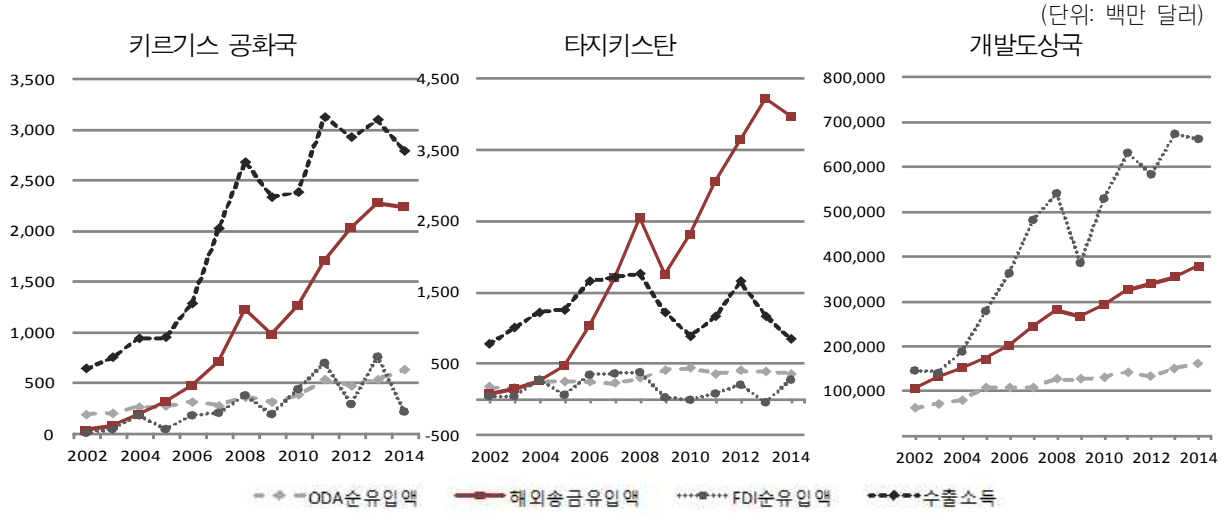
6) *International Alert*(2016. 5), "Changing patterns of labour migration in Tajikistan," Policy Brief.

국가빈곤율(National Poverty rate) 감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o 키르기스의 경우 빈곤율이 가장 높은 서부지역(Jalabad, Batken, Osh 등)에서 해외송금의 빈곤감소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7)]

그림 2. 중앙아시아의 ODA · FDI · 수출과 해외송금 유입 비교(2004~2014)

(단위: 백만 달러)



주: 우즈베키스탄은 데이터 부족으로 제외, 〈개발도상국〉에서 '수출소득'은 'FDI순유입액'의 약 10배 기록.
자료: WDI(2016. 6. 1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중앙아시아 3개국(키르기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이주노동자 가운데 60~80%가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해외송금유입의 9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음.

o 러시아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세계 3위의 송금지급국(2014년 기준) 이자 4위의 이주유입국(2013년 기준)으로 지리적 근접성, 러시아어 사용, 무비자 입국 허용 등의 편의에 따라 중앙아시아 3개국을 포함한 구소련 국가들에서 다수의 이주자들이 유입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러시아 경기침체가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주변국에 미치는 여파를 감안할 때 해외송금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안정적이거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천이 될 수 없음.

- 해외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국내외적 충격에 대한 가계의 취약성 또한 높아지며 정부차원의 국가경제개혁, 인적자본개발, 산업 및 생산수단 발전 유인이 저하되기 쉬움.

o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내 노동시장 참여부족, 낮은 세금수익,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제도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사회·경제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 증가, 금융시스템과 이주산업 등의 발달 또한 송금액에 의존적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최근에는 서방제재와 저유가로 러시아가 경기침체에 빠짐에 따라 해외송금 의존도가 높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송금유입액 급감, 실업률 증가,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이 나타나고 있음.

7) UNDP(2015), *Labour Migration, Remittances, and Human Development in Central Asia*, pp. 18-19.

■ 본 보고서에서는 러시아 경기침체와 이주법 개정이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송금 의존도가 높은 중앙아시아 3개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가 직면한 과제와 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2. 러시아 경기침체와 이주법 개정이 이주노동자 송금에 미치는 영향

■ 러시아向 이주인구의 약 32.6%가 중앙아시아 3개국(키르기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며 러시아發 송금액의 약 41.0%(2011~2015년 평균 기준)가 이들 국가로 유입되고 있음.

- [이주노동자 수] 러시아 이주청(Russian Federal Migration Service)[8]에 따르면, 2016년 4월 5일 기준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985만 명)의 85.9%인 약 847만 명이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9] 9개국과 우크라이나 출신이며 이 가운데 320만 9천 명(전체의 32.6%[10])이 중앙아시아 3개국으로부터 유입됨(표 2 참고).
  - o 불법이주자 수와 이주민 등록시스템 미비 등을 감안하면 추가로 4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11]
  - o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 이주노동자 수가 훨씬 많으며 중앙아시아 남성 10명 중 4명이 해외이주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10명 중 8명이, 키르기스는 10명 중 6명의 이주노동자가 남성임.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비중이 전체 이주노동자수의 80%를 차지함.
- [송금유입액] 2015년 기준 러시아發 송금액은 약 162억 3,400만 달러[12]로 이 중 76.4%가 CIS 9개국과 우크라이나로 유입되었음(표 3 참고).
- 이는 러시아發 송금액이 약 304억 달러에 달했던 2013년과 비교하여 절반 가까이 떨어진 규모이며 송금액 의존도가 가장 높은 타지키스탄, 키르기스, 우즈베키스탄으로 유입된 송금액은 2년 사이 각각 46.8%, 28.3%, 61.2% 감소하였음.

---

8) 대통령령에 따라 2016년 4월 5일부로 해체되었으며 이후 관련 기능과 관계자는 모두 'General Administration for Migration Issues of the Interior Ministry of Russia'로 이전됨.
9)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비공식 참관국) 등 10개 공화국. 조지아는 2008년 8월, 우크라이나는 2014년 3월 탈퇴.
10) 2001~11년 중앙아시아 3개국 전체인구(약 4,400만 명) 중 90만 명 이상이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받았으며 2012년에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이주자수가 러시아 전체 이주유입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음(UNDP(2015), *Labour Migration, Remittances, and Human Development in Central Asia*, p. 11).
11) Russia Direct(2015. 11. 11), "Russia's big fear: Migrant workers become ISIS militants."
12) 이는 공식적인 은행 송금액만 집계된 금액이며 실제로 현금, 상품 등 비공식경로를 통해 유입된 송금액까지 감안하면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

표 2. 국가별 對러시아 이주자 수

(단위: 천 명)

순위	국 가	비중	합계	남 성					여 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전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전체
1	우크라이나	25.2	2,487	585	354	252	260	1,451	393	190	158	296	1,036
2	우즈베키스탄	17.8	1,756	805	315	226	82	1,428	139	89	58	41	328
3	타지키스탄	8.9	879	433	167	94	33	727	82	36	22	11	151
4	벨라루스	6.6	654	152	104	66	48	370	132	66	42	43	284
5	카자흐스탄	6.3	622	162	78	58	73	371	101	39	33	78	252
5	카자흐스탄	6.3	622	162	78	58	73	371	101	39	33	78	252
6	키르기스	5.8	574	231	65	39	16	351	136	44	28	15	223
7	아제르바이잔	5.3	519	147	76	60	55	339	77	31	30	41	180
8	몰도바	4.9	478	142	80	53	35	309	70	38	32	30	169
9	아르메니아	4.8	472	125	73	49	63	310	65	29	22	45	162
10	중 국	2.4	239	41	27	34	40	142	26	14	21	36	97
–	중앙아 3개국[a]	32.6	3,209	1,469	547	359	131	2,507	357	169	108	67	702
–	CIS9+우크라이나[b]	85.9	8,465	2,794	1,314	898	665	5,671	1,201	563	427	602	2,793
–	세 계	100.0	9,854	3,058	1,506	1,096	937	6,598	1,338	627	501	790	3,256

주: 2016.4.5일 기준 공식 집계된 수치로, 실제치와 차이가 있음.
[a]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b] 러시아 제외 CIS 9개국과 우크라이나
자료: General Administration for Migration Issues of the Interior Ministry of Russia(검색일: 2016. 5. 20).

표 3. 국가별 러시아發 유입 송금액(2011~2015)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 가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중[a]	2013년 대비 변화율[b]
1	우즈베키스탄	4,692	6,241	7,878	5,828	3,054	18.8	– 61.2
2	타지키스탄	2,705	3,125	3,927	3,662	2,088	12.9	– 46.8
3	우크라이나	3,046	3,397	4,090	3,187	1,823	11.2	– 55.4
4	키르기스	1,386	1,682	2,113	2,239	1,514	9.3	– 28.3
5	아르메니아	1,168	1,398	1,747	1,752	1,121	6.9	– 35.8
6	아제르바이잔	932	1,139	1,378	1,374	948	5.8	– 31.2
7	몰도바	1,602	1,960	2,248	1,862	908	5.6	– 59.6
8	벨라루스	684	843	993	1,000	581	3.6	– 41.5
9	카자흐스탄	290	298	377	465	351	2.2	– 6.9
10	투르크메니스탄	22	27	35	30	16	0.1	– 54.3
–	중앙아 3개국[c]	8,783	11,048	13,918	11,729	6,656	41.0	– 52.2
–	CIS9+우크라이나[d]	16,526	20,110	24,786	21,400	12,403	76.4	– 50.0
–	세 계	21,495	25,356	30,406	27,016	16,234	100.0	– 46.6

주: 2016. 4. 22일 기준.
[a] 2015년 기준, [b] 對러 경제재제 전인 2013년 대비 2015년 변화율, [c]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d] 러시아 제외 CIS 9개국 및 우크라이나.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16. 5. 20).

■ [러시아 경기침체] 그러나 러시아 경기침체와 루블화 가치폭락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러시아發 송금액을 큰 폭으로 떨어뜨렸으며 이는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유럽 등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를 적용한 데 이어 국제유가와 루블

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러시아는 1998년 화폐개혁 이후 2016년 1월 21일 중앙은행 기준 환율이 처음으로 80루블 선(82.37RUB/USD)을 넘어서는 등 최악의 통화위기를 맞이함.

표 4. 러시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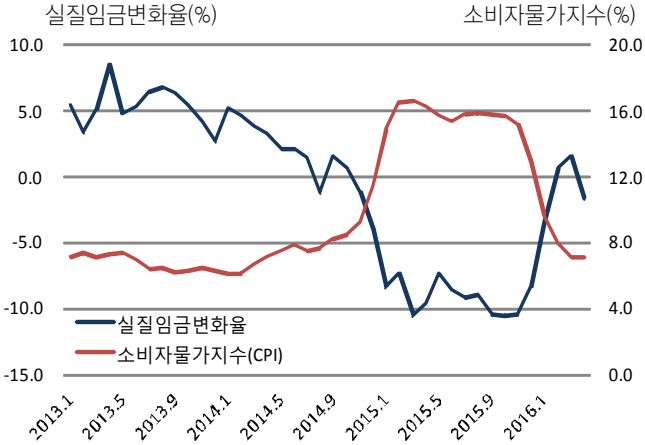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7[a]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a]	Q3[a]	Q4[a]	Q1	Q2
GDP 성장률	1.2	1.2	0.8	0.0	−2.6	−4.4	−3.8	−4.0	−1.1	−0.6	−0.8	−0.5	−0.4	0.9

주: 전년동기대비.
[a] 예측치.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하 EIU 2016. 6), *Country Report: Russia* 외.

그림 3. RUB/USD 환율 변화 추이

주: 월말 기준.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16. 5. 25).

그림 4. 러시아 실질임금 및 CPI 변화 추이



주: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지수 당월 평균기준.
자료: EIU(2016. 6), *Country Report: Russia* 외.

- 러시아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루블화가 평가절하(2013년 1월 30.03RUB/USD → 2016년 1월 75.17RUB/USD)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귀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표 4, 그림 3 참고).

o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경기변동에 취약한 건설, 서비스, 자원개발 및 기타 저소득·저숙련 산업분야로 진출해온 바 러시아 경기침체에 의한 타격을 훨씬 크게 받은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실질임금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맞물리면서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그림 4 참고)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환전하는 과정에서 송금액의 가치가 절반 가까이 하락함.

- 이에 따라 2015년 말 기준 중앙아시아 3개국의 러시아發 송금액이 2013년 대비 약 52.2% 감소하였으며 이는 동 국가들의 자국 화폐 평가절하, 인플레이션, 투자 및 수출입 감소, 생활수준 저하 등을 초래함.

o 송금액 감소와 對러시아 수출경쟁력 상실[13] 등을 우려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화폐가치를 하향조정[14]

13)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자동차 제조업을 중심으로, 키르기스는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Foreign Policy*(2016. 1. 22), "A Perfect Storm in Central Asia").

14) 카자흐스탄에서는 2015년 8월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이래 통화가치가 100% 이상 폭락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2015년 1월 통화가치를 19% 하향조정함. 나머지 국가들에서도 통화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달러 매매에 강력한 제한을 두고 있음. 투르크메니스탄은 지난 1월 중순 달러매매를 전면 금지시켰으며 타지키스탄은 환전소들이 몇 주에 걸쳐 영업을 중단한 바 있음(Umida Hashimova(2016. 2. 11), "Russia-Uzbekistan migration agreement unlikely to change conditions for migrants," Field Reports, The Central Asia-Caucasus Analyst).

하였으나 루블화 가치폭락과 러시아 수요 감소 효과를 상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o 송금액의 70~90%가 생계형 소비에 사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송금액 감소와 수입가격 상승은 물가상승과 저소득 계층 중심의 생활수준 저하로 직결됨. 이는 수입품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남.

■ [이주법 개정] 이에 더하여 최근 러시아 정부가 이주노동자 취업허가조건을 보다 강화하는 형태로 기존의 이주법을 개정함에 따라 귀국하는 이주노동자 수가 급증하면서 송금액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불안이 확대되고 있음.

- 새로운 규제법이 러시아 언어·역사·기본법 능력시험, 의료보험 가입, 건강검진 등을 추가로 요구함에 따라 취업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기존에 허용되었던 국내신분증으로 러시아에 입국하는 것이 전면 금지(국제여권으로 대체)됨(글상자 1 참고).

o 취업허가증 발급비용(1만 4,500루블, 약 220달러)과 각종 서류 갱신비용(월 4천 루블, 약 60달러)만 연간 1,000달러에 달하며 의료보험 가입, 납세자 인식번호 발급, 각종 능력시험 취득비용이 추가로 발생함. 또한 모든 이주노동자는 HIV, 결핵, 약물중독, 피부질환 검사 등을 거쳐야 하며 이 모든 절차를 30일 이내 완료하지 못할 시 1만 루블(약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됨.[15)]

글상자 1. 러시아 이주법 개정(2015. 1. 1) 개요

» 임시 또는 영구 거주허가증, 취업허가증 등 발급신청 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러시아 언어, 역사, 기본법 능력시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무비자로 러시아 입국 시 30일 이내 의료보험증, 진단서, 러시아 언어·역사·기본법 능력시험 증명서, 노동목적으로 발급받은 이주 증서(migration card), 신분증(국제여권) 등을 제출해야 함.
»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12개월이며, 기간 내 최대 12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함.
» 6개월~1년 미만 불법거주 적발 시 5년간 러시아 재입국이 금지되며, 1년 이상 불법거주 적발 시에는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됨.
» 주거허가증, 취업허가증 등 발급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거주로 간주됨.

자료: General Administration for Migration Issues of the Interior Ministry of Russia(검색일: 2016. 5. 20).

표 5. 중앙아시아 국가별 러시아 이주법(2015. 1. 1 개정) 적용 사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국제여권 소지	o				
비자 발급	x (90일 무비자)	x (90일 무비자)	x (90일 무비자)	o	x (90일 무비자)
거주지신고	입국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취업허가증 발급 필요	x	x	o	o	o

자료: UNDP(2015), "Labour Migration, Remittances, and Human Development in Central Asia," p. 50.

15) 대부분의 이주자들이 중개소를 통해 취업허가증을 발급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Eurasianet(2016. 5. 10), "Uzbekistan: Labor Migrants Looking Beyond Russia"; UNDP(2015), *Labour Migration, Remittances, and Human Development in Central Asia,* p. 41).

o 그동안 이중국적의 혜택(국내여권으로 러시아 출입가능)을 받던 타지키스탄 국민들도 2015년 1월 1일부로 국제여권 미소지시 러시아 출입이 제한되며, 240~330달러에 달하는 국제여권 발급비용은 타지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

o 반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16] 회원국들에는 취업허가증 발급 조건이 모두 면제됨(표 5 참고)에 따라 키르기스,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등에서 러시아向 이주노동자 수가 각각 3.8%, 32%, 10% 가량 증가함(2015년 1월 전년동월대비).[17]

- 불법이주자에 대한 법적제재 또한 강화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강제로 추방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o 러시아 기업 또는 중개인이 수수료 절감차원에서 필수서류 누락, 잘못된 정보 제공, 심지어는 위조 취업허가증을 발급함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이 기소되거나 국외 추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18]

3. 해외송금액 감소가 중앙아시아 각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 앞서 논의된 러시아의 경기침체에 따른 루블화 가치폭락과 이주법 개정은 중앙아시아 3개국의 송금유입액 감소, 이주노동자 귀국에 따른 국내 실업률 증가, 가계소득 감소, 물가상승, 자국 화폐가치 하락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국가별 현황을 살펴봄.

- 소련해체 이후 중앙아시아는 對러시아 의존도를 점차 축소해왔으나 러시아는 여전히 중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역·투자 협력대상국이자 이주노동자들의 거대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o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러시아發 송금액은 체제전환기부터 주된 경제 기반이었음.

- 중앙아시아 3개국 경제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해외송금유입액은 GDP의 30%, 많게는 50%를 차지하며 이 중 90% 이상이 러시아로부터 유입되고 있는바, 이들 국가의 對러시아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그림 5 참고).

- 러시아 경기침체, 루블화 가치폭락, 이주법 개정 등으로 3개국의 러시아向 이주노동자 수가 지난 2년 사이 약 20%, 러시아發 송금액이 50% 이상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화폐가치가 크게는 60% 이상 하락하고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되고 있음(그림 6, 표 6 참고).

o 재정적자 심화를 겪는 일부 국가들은 식료품, 전기, 수도 등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 또는 중단한 상황이며[19] 이로 인해 저소득층이 경제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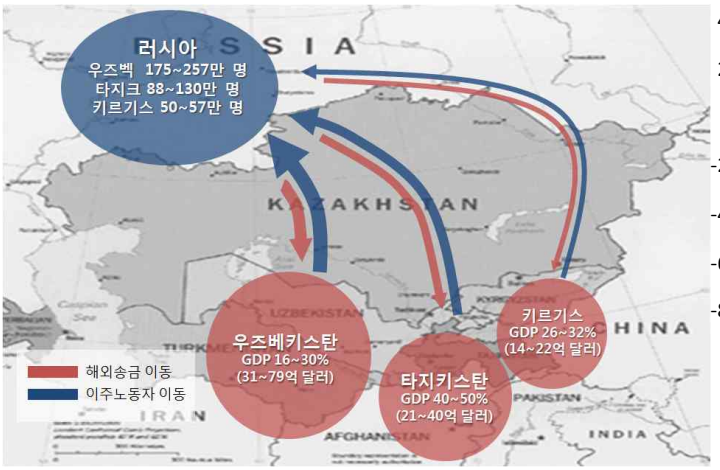
16) 구소련 국가들의 다각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2015년 1월 출범한 러시아 주도의 경제공동체로 상품, 자본, 노동,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함. 현재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가 가입.

17) Nurzhan Zhambekov(2015. 4. 29), "Russia's Regulation of Labor Migration Set to Hurt Central Asian Economies," Analytical Articles, The Central Asia-Caucasus Analyst, 키르기스는 2015년 8월에 EAEU 가입을 완료하였으나 준비단계에서 가입이 확실시 되면서부터 對러시아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함.

18) 타지키스탄의 경우 이주자의 60%만이 서류를 구비한 것으로 파악(The Enlightened Remitter(2015. 9. 8), "Reliance on Remittances in Tajikistan and Future Influ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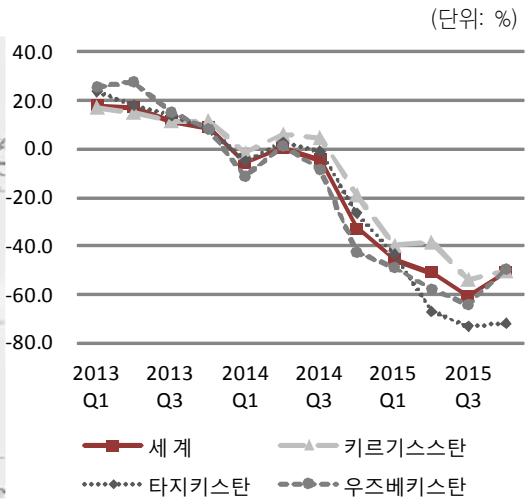
19) *Foreign Policy*(2016. 1. 22), "A Perfect Storm in Central Asia."

그림 5. 중앙아 3개국의 이주노동자 및 해외송금 이동 현황



주: '해외송금'은 2011~2015년 기준, '이주노동자'는 2013~2015년 기준(추정치 일부 포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6. 러시아發 송금유입 변화



주: Money Transfer Operators를 통한 송금유입 기준, 전년동기대비 변화율.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16. 5. 24).

표 6. 러시아 경기침체에 따른 중앙아시아 국가별 영향(2015년 기준)

	키르기스 공화국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해외송금유입/GDP[a]	26~32%	20~50%	16~30%
국가빈곤율[b]	30.6%	32.0%	14.1%
러시아 유입 이주노동자수[c](비공식)	57만 4천 명(150만 명), 2014년 1월 대비 9.3%↑	87만 9천 명(100만 명 이상), 2014년 6월 대비 24.9%↓	175만 6천 명(200만 명), 2014년 6월 대비 31.7%↓
러시아發 송금유입액	$16억 2천만, 2013년 대비 26.9%↓	$20억 9천만, 2013년 대비 46.8%↓	$30억 5천만, 2013년 대비 61.2%↓
US달러 대비 환율[d]	50.6%↑	63.4%↑	28.5%↑
인플레이션[e]	6.5%	10.8%	10.0%
실업률(청년실업률)[f]	8.1%(14.7%)	10.9%(15.5%)	10.6%(20.3%)
경제성장률[e] (2013년 대비 증감률)	3.5%(7.4%p↓)	2.0%(5.4%p↓)	4.5%(3.5%p↓)

주: [a] 2011~2015년 기준, [b]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2014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2013년 기준, [c] 2016. 4. 5 기준(러시아 이주청), [d] 2014년 1월 대비 2016년 1월 변동률, [e] EIU 추정치, [f] 2014년 기준(WDI).
자료: 각종 통계치, 언론자료, 국가별 EIU Country Report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가. 키르기스 공화국

■ [러시아向 이주노동자 수 증가] 키르기스의 EAEU 가입으로 러시아 입국 및 노동 조건이 완화되면서 러시아로 유입되는 이주노동자 수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임. 러시아向 이주노동자수는 공식적으로는 57만 명(2016년 4월 기준), 실제로는 150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20]

- 소련해체 이후 경제위기와 투자부족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으로 향하는 대규모 이주노동자를 낳았으며 최근

20) IRIN(2015. 4. 24), "Hope and fear: Kyrgyz migrants in Russia."

까지도 매년 전체 인구의 10~30%, 이주노동자의 80% 이상이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음.

- EAEU 가입으로 타지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는 달리 취업허가증 발급 조건이 면제되는 등 러시아 입국조건이 완화[21]되면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 유입되는 이주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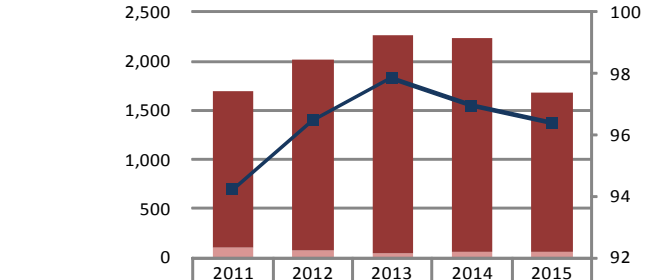
o 2014년 1월 52만 5천여 명에 달하던 키르기스 이주노동자수는 러시아 경기침체와 루블화 가치급락으로 2015년 초 소폭 감소하였으나(50만 2천여 명), 2015년 5월 키르기스의 EAEU 가입이 확정[22]되면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4월 기준 57만 4천여 명을 기록함.[23]

■ [러시아發 송금액 감소] 러시아 경기침체와 루블화 평가절하로 2013년 22억 2천만 달러에 달하던 송금유입액이 2015년에는 16억 2천만 달러로 2년 사이 약 26.9% 급락함(그림 7, 그림 8 참고).

- 키르기스의 GDP 대비 송금액 비중은 26~32%로 타지키스탄(40~50%)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이 가운데 약 97%가 러시아로부터 유입됨.
- 2014년에는 러시아發 송금액 감소폭이 2.3%에 그쳤으나 2015년에는 전년대비 1/4로 확대되어 약 1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일부 가구에서는 가축과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24]

그림 7. 키르기스 해외송금유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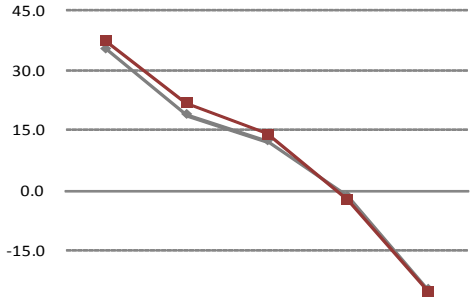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러시아	1,598	1,946	2,219	2,168	1,623
기타 국가	98	72	49	68	61
러시아 비중 (%)	94.2	96.4	97.8	97.0	96.4

그림 8. 세계 · 러시아發 송금유입 변화율 추이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세 계	35.4	19.0	12.4	-1.4	-24.7
러시아	37.2	21.8	14.0	-2.3	-25.1

자료: 키르기스 중앙은행 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6. 5. 30).

21) 키르기스 이주노동자들은 러시아 국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러시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인노동자 할당제 미적용, 취업허가증 발급 면제, 가족 방문 시 30일간 미신고 체류 허용(기존에는 7일로 제한), 거주허용기간(최대 2년) 미적용, 각종 사회보장제도 동일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받음. 여기에 더하여 2014년 초 19만 4천여 명에 달하던 '블랙리스트(러시아 재입국 금지 명단)'에서 다수의 불법이주자들이 삭제됨(KABAR(2016. 5. 31), "Condition of Kyrgyz migrants in Russia and Kazakhstan after accession to the EEU").

22) 2015년 5월 협정서에 서명, 8월 4일 회원국 승인 완료, 8월 12일 협약 발효.

23) 카자흐스탄向 키르기스 이주노동자 수 또한 기존의 8만여 명에서 2016년 1월 11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함. KABAR(2016. 5. 31), "Condition of Kyrgyz migrants in Russia and Kazakhstan after accession to the EEU"; Analytical Articles(2015. 4. 29), "Russia's Regulation of Labor Migration Set to Hurt Central Asian Economies."

24) Silk Road Reporters(2015. 7. 21), "Slowing Remittances Take a Toll on Kyrgyz Economy."

■ 키르기스 솜화(som, KGS)와 루블화 가치폭락, 송금액 및 수출 감소 등으로 2015년 키르기스는 경제성장률 3.5%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는 러시아 경기침체 지속과 저조한 금 수출 소득으로 0.6%의 저조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송금유입액 급락, 국제 금 가격하락(2014~15년 사이 약 17.9%↓)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2014년과 2015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4.0%와 3.5%를 기록함(표 7 참고).

o 키르기스 솜화 평가절하와 송금액 감소로 소비(70%가 수입품)가 크게 감소하면서 2015년 수입이 전년대비 29.6% 감소함(그림 9 참고).

- 송금액과 무역량 감소 및 추가적인 평가절하 압박으로 솜화 가치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됨(그림 10 참고)에 따라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o 2015년 인플레이션은 6.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키르기스 솜화 가치하락, 높은 국제식량가격, EAEU 관세 적용 등에 따라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표 7. 키르기스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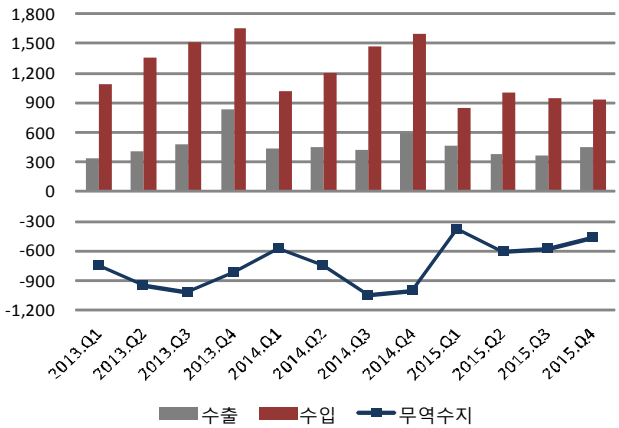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a]
		Q1	Q2	Q3	Q4[b]	Q1	Q2	Q3	Q4[b]	Q1	Q4[a]	
GDP 성장률	10.9	7.2	5.8	5.0	4.0	6.3	6.8	5.9	3.5	-4.9	0.6	2.4

주: [a] EIU 예측치; [b] EIU, IHS 등에서는 3.6%로 발표; 분기별 수치는 누적 기준.
자료: EIU(2016), *Country Report: Kyrgyzstan*, Q2; 키르기스 중앙은행.

그림 9. 키르기스 수출입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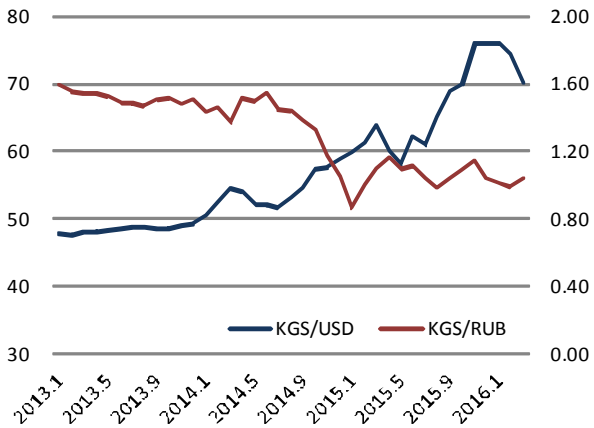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키르기스 중앙은행(검색일: 2016. 5. 30).

그림 10. 키르기스 솜(som) 환율 변동 추이

(단위: KGS/USD) (단위: KGS/RUB)



주: 월말 기준.
자료: 키르기스 중앙은행(검색일: 2016. 5. 30).

나. 타지키스탄

■ 러시아 경기침체와 이주법 개정으로 러시아向 이주노동자 수가 25% 이상 감소하였으며, 러시아發 송금액은 2013년 42억 2천만 달러에서 2015년 20억 9천만 달러로 약 46.8%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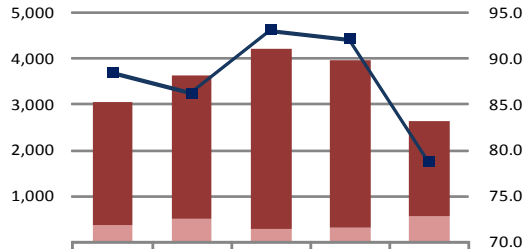
- [러시아向 이주노동자 수 감소]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귀국함에 따라 2014년 6월 기준 117만 명에 달하던 러시아向 이주노동자 수는 2016년 4월 87만 9천여 명까지 감소하였으며[25] 이로 인해 'mardikors(타직어, 일용직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음.

o 2016년 1월 기준 약 33만 3천여 명의 타직인들이 이주법 위반, 각종 요금미납 등의 사유로 러시아 재입국 금지처분을 받았으며[26] 이들 중 많은 수가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여 하루에 20~50소모니(somoni, 약 2.5~6.3 달러)를 받으며 건설공사, 원예, 이사 등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음.[27]

- [러시아發 송금액 감소] 러시아發 송금액이 2014년에는 전년대비 6.7%, 2015년에는 43.0% 감소하면서 GDP의 40~50%를 차지하는 전체 송금유입액이 2015년 26억 5,100만 달러를 기록함(그림 11, 그림 12 참고).

그림 11. 타지키스탄 해외송금유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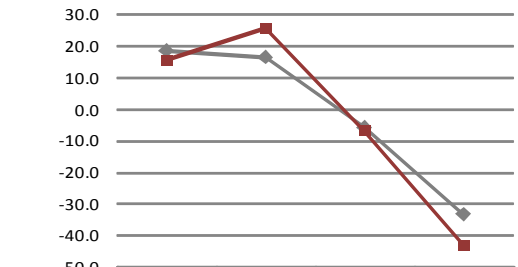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러시아	2,705	3,125	3,927	3,662	2,088
기타 국가	355	501	292	313	563
러시아 비중 (%)	88.4	86.2	93.1	92.1	78.7

그림 12. 세계 · 러시아發 송금유입 변화율 추이

(단위: %)



	2012	2013	2014	2015
세 계	18.5	16.4	-5.8	-33.3
러시아	15.5	25.7	-6.7	-43.0

주: 2015년 '기타 국가' 및 '러시아 비중'은 추정치(EIU(2016), *Country Report: Tajikistan*, Q2.)를 바탕으로 계산.
자료: WDI(2016. 5. 2); EIU(2016), Country Report: Tajikistan, Q2; 러시아 중앙은행 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타지크 소모니화(somoni, TJS) 및 루블화 가치폭락, 송금액 급감, 수출 감소 등에 따라 타지키스탄의 2015년 경제성장률은 2.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도 러시아 경기침체와 소모니화 가치하락이 지속되면서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표 8 참고).

- 2015년 송금유입액(GDP의 40~50% 차지)이 전년대비 33.3%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루블화 가치폭락은 가계 실질소득을 더욱 감소시켰으며, 주요 수출품목인 알루미늄의 국제가격 하락(전년대비 11%↓)과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악화로 총수출 또한 전년대비 8.9% 감소함.

- 귀국하는 이주노동자 수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평균임금은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US달러 대비 소모니화 평가절하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음.

o 전체실업률은 28~32%, 29세 이하 인구에서는 80% 이상의 실업률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28]

o 2015년 인플레이션은 10.8%(전년대비 4.7%p↑)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는 소모니화 평가절하, 가뭄에 따른 식량가격 상승 등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25) 비공식적으로는 100만 명 이상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26) 러시아 이주청에 따르면 2016년 말에는 재입국 금지대상자 수가 약 40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International Alert(2016. 5), "Changing patterns of labour migration in Tajikistan," Policy Brief).
27) IWPR Central Asia(2016. 3. 10), "Russian crisis continues to bite for labour migrants."
28) 신뢰성이 높은 공식적인 통계치 부재(IWPR Central Asia(2016. 3. 10), "Russian crisis continues to bite for labour migr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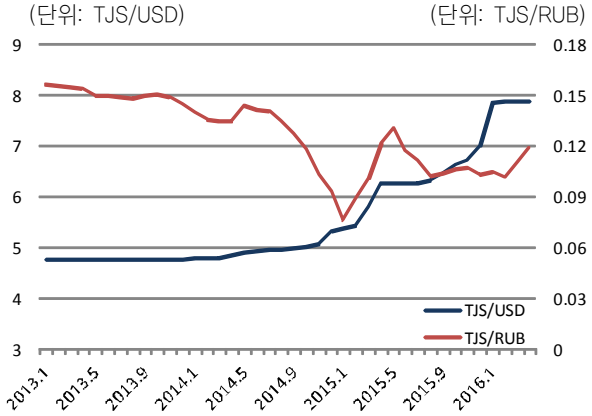
표 8. 타지키스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a]	2016[b]	2017[b]
GDP 성장률	7.4	7.5	7.4	6.7	2.0	−1.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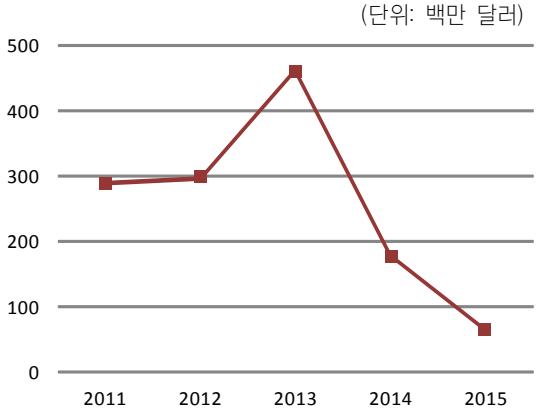
주: [a] 타지키스탄 중앙은행은 6.0%로 발표하였으나 해당 통계치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b] EIU 추정치.
자료: EIU(2016), *Country Report: Tajikistan*, Q2; 타지키스탄 중앙은행(2015), *Banking Statistics Bulletin* 외.

그림 13. 소모니(somoni) 환율 변동 추이



주: 월말 기준.
자료: 타지키스탄 중앙은행(검색일: 2016. 5. 26).

그림 14. 타지키스탄 외환보유고 현황



자료: EIU(2016), *Country Report: Tajikistan*, Q2.

- US달러 대비 소모니화 가치는 2014년 중순 이래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그림 13 참고) 러시아 경기침체, 송금액 감소 등으로 2016년 경제성장률이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o 외환보유고는 급격하게 하락하여 2015년 1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그림 14 참고).[29]

다. 우즈베키스탄

■ 해외 이주노동자 수 가운데 약 60%가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러시아 송금유출액의 25% 가량이 우즈벡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최근 러시아 경기침체에 따라 러시아向 이주노동자 수가 30% 이상, 러시아發 송금액이 60% 이상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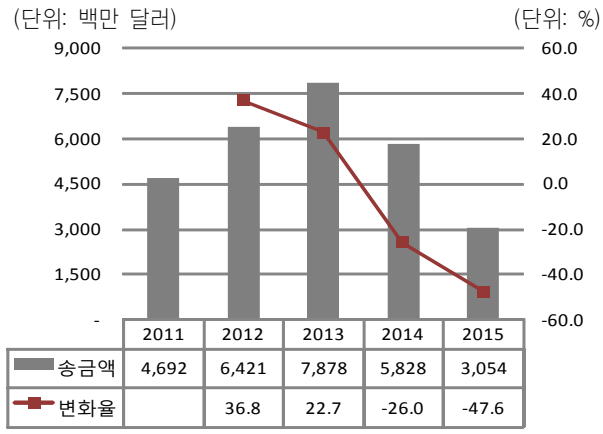
- [러시아向 이주노동자 수 감소] 2014년 6월 기준 약 257만 명에 달하던 러시아向 이주노동자 수는 최근 175만 6천여 명으로 지난 2년 사이 약 31.7% 감소하였으며,[30] 러시아를 떠난 노동자의 많은 수가 주변국인 터키, 중동국가 등으로 재이주를 선택하고 있음.[31]

- [러시아發 송금액 감소] 2013년 78억 8천만 달러에 달하던 러시아發 송금액은 2014년 58억3천만 달러, 2015년

29) 이에 따라 타지크 정부가 2016년 2월, IMF에 5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Bailout programme)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요청.
30) 불법이주자까지 감안하면 약 20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31)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2015. 6. 21), "How Deep Will Economic Crisis Bite in Central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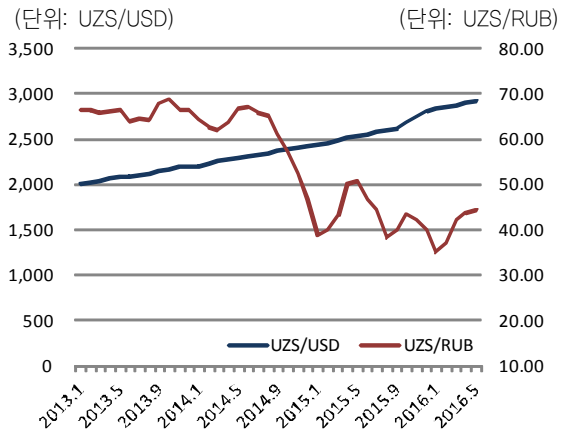
에는 30억 5천만 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지난 2년 사이 약 61.2% 급락함(그림 15 참고).

그림 15. 우즈베키스탄 러시아發 송금유입 추이



주: 2016. 4. 22일 기준.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16. 5. 20).

그림 16. 우즈벡 솜(som) 환율 변동 추이



주: 월말 기준
자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검색일: 2016. 6. 2).

표 9. 우즈베키스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11	2012	2013	2014[a]	2015[a]	2016[b]	2017[b]
GDP 성장률	8.3	8.2	8.0	6.5	4.5	2.5	5.5

주: [a]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에서는 2014년 8.1%, 2015년 8.0%로 발표하였으나 해당 통계치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b] EIU 예측치.
자료: EIU(2016), *Country Report: Uzbekistan*, Q2; 우즈베키스탄 통계청(검색일: 2016. 6. 2).

■ 우즈벡 2015년 경제성장률은 주요 교역대상국인 러시아의 경기침체, 주요 수출품목의 국제가격 하락, 송금유입액 감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2.0%p 하락한 4.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표 9 참고).

- 우즈벡 대외무역의 19.8%(2011~14년 기준, IMF)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경기침체, 2014년 말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루블 대비 우즈벡 솜화(som, UZS) 평가절상(그림 16 참고), 주요 수출품목(천연가스, 면화, 금 등)의 국제가격 하락 등은 국가의 생산 및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우즈벡은 이주노동자수와 송금유입액이 중앙아시아 3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대책 부재로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o 2015년 공식 실업률은 5.1%이나 기본적으로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우즈벡으로 수천 명의 실업자가 유입됨에 따라 실제로는 도시실업률이 20%, 농촌실업률이 4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32)]

32) 우즈베키스탄은 1990년대 초에 비해 인구가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구소련국가들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함(Carnegie Moscow Center(2016. 5. 11), "Uzbeks in Russia: Not Homesick Yet").

4. 전망과 과제

■ 러시아 경기침체에 이어 최근 브렉시트(Brexit) 여파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송금유입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인바, 이들 국가는 이주노동자와 해외송금 활용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들어 러시아 경제가 저유가와 서방제재 충격에 적응하면서 경기침체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6월 브렉시트의 여파로 전망이 다소 불투명해짐.

o 브렉시트의 여파로 국제 금융시장과 원자재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시장의 위축은 러시아 경제(對유럽 교역의존도 약 50%)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임. 한편 러시아 측에서는 對러 제재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던 영국의 탈퇴로 유럽연합의 결속력이 약화될 경우 유럽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가 정상화되더라도 중앙아시아 송금액의 대부분이 기초 생필품 및 비생산적 부문에 소비되고 있는바, 이에 의존하여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발전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임.

o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원조와 외국인투자 없이는 제조업, 농업 등 각종 기반산업 발달이 어려운 상황이며 해외송금은 금융 인프라 미흡, 투자기회에 대한 정보부족,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경험부족, 비일관적인 법률 집행 및 세금제도, 정부의 중재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비생산적으로 소비되고 있음.[33)]

- 또한 해외송금유입 규모가 커질수록 인플레이션, 자국통화가치 평가절상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국내 노동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시킴.

■ 중앙아시아 3개국 경제에서 해외송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러시아向 이주노동자수의 급격한 증가가 국내 노동력 부족 → 산업발전 저조 → 노동시장 부재, 저임금 지속 → 귀국 유인 감소, 이주노동 선호로 이어지면서 이들 국가의 대규모 인적자본이 유출·손실되고 있기 때문임.

- 중앙아시아 3개국은 지리적 근접성과 구소련 국가로서의 문화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러시아로부터 송금액 효과를 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러시아에 흡수 및 동화될 경우 대규모 인적자본 손실이 우려됨.

o 유엔경제사회국(UNDESA: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과 IMF 등은 중앙아시아의 송금유입액 및 이주노동자 수의 증가세가 20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러시아의 한 NGO[34)]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키르기스 이주민의 약 1/3이 러시아에 영구정착을 희망하고 있음.

- 유입된 송금액이 창업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투자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러시아의 저숙련 직업군으로 유입되면서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저평가되고 있음.

o 예로, 타지크정부의 취업정책은 러시아 이주노동을 권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이 러시아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데 한정되어 있음.[35)]

---

33) The Central Asia Fellowship Papers(2015. 9), “Labor Migrant Households in Uzbekistan: Remittances as a Challenge of Blessing?” Farrukh Irnazarov.

34) Social Project Support and Development Charity Foundation.

■ 따라서 이들 국가에는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영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각종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며, 혼합금융(blended finance, 송금액 협조융자)[36]과 같은 커뮤니티 단위의 노력이 요구됨.

- 창업정보 및 각종 기술훈련 프로그램 제공, 기초 금융교육 제공, 소액대출(Microcredit) 보급을 통한 자영업 육성, 세금감면 혜택을 통한 투자유인 확대 등과 더불어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 세금제도 체계화, 각종 법률 집행을 강화, 소비패턴 수정과 창업을 유도하는 대대적인 홍보 등이 요구됨.[37]
- '개발을 위한 혼합금융(blended finance for development)'은 비생산적으로 소비되기 쉬운 해외송금을 개발 사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ODA보다 해외송금유입 비중이 큰 중앙아시아 3개국에 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38]

※ 몰도바에서 시행한 'Pare 1+1'은 대표적인 개발을 위한 혼합금융 사례로, 유럽연합과 IOM의 지원을 바탕으로 가계송금의 일부를 사업 활동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량을 개발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2010년부터 시행됨. 가계송금 1유로 당 1유로의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 보조금 지원, 소규모 창업에 필요한 상업정보와 상담서비스 제공 및 운영자본 지원, 선별적인 훈련 교육 및 견습, 프로그램 효과성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2010~2014년 사이 약 1억 8,400만 몰도바 레우(leu, 약 천만 달러)의 투자를 창출한 바 있음.

■ 이주노동자와 국내에 남겨진 여성과 아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대책 또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이주노동자 가운데 약 40%가 공장, 지하실, 트레일러 등 생활시설이 부족한 비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며 많은 수가 주 75시간 이상의 긴 노동시간과 각종 질병, 노동착취 및 학대, 인신매매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o [질병노출]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서 결핵 및 각종 폐질환, HIV 등에 감염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39]

o [노동착취 및 학대]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같은 직군에서도 러시아 국민들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

o [인신매매] 2009년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조사[40]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가 약 38만 명에 달함.

o [기타 위협] 이에 더하여 최근 러시아에서 국수주의 정서가 확산됨에 따라 '러시아는 러시아인의 것(Russia is for Russians)'라는 슬로건이 유행하고 있으며 아시아 이주노동자, 특히 우즈벡인(인구의 88%가 이슬람교 수니파)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 2000년대 초 시작된 해외이주노동자(80%가 남성) 급증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성비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가장의 부재로 인해 여성과 아동에 가족부양과 가사노동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o 성비불균형 심화로 인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여아 조기결혼이 성행하고 있으며 가사노동 부담 증가로 여아들

35) *International Alert*(2016. 5), "Changing patterns of labour migration in Tajikistan," Policy Brief.
36) 개발자금 제공자들이 지원하는 개도국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재원을 동원하는 형태(EDCF).
37) 2009년 우즈베키스탄으로 유입된 송금액의 18% 이상이 혼례를 비롯한 전통의식 비용으로 사용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상당 규모의 송금액이 비생산적으로 소비되고 있음.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평균적인 전통혼례비용(2012년 기준)은 타지키스탄 $5,000, 우즈베키스탄 $10,000, 키르기스 $12,250에 달하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노동자는 각각 평균 4년, 5.8년, 2.3년, 이주노동자는 각각 평균 0.7~0.9년, 1.3~1.8년, 1.6~2.2년이 소요됨(The Central Asia Fellowship Papers(2015. 9), "Labor Migrant Households in Uzbekistan: Remittances as a Challenge of Blessing?" Farrukh Irnazarov).
38) UNDP(2015), *Labour Migration, Remittances, and Human Development in Central Asia*, p.58~59.
39) 전년대비 2014년 귀국한 우즈벡 노동자 중 HIV 감염환자가 2배 가까이 증가(*Ibid.*, p. 42).
40) T.Kydyrov *et al.*(2010), *The Scale of Human Trafficking in Central Asia*, p. 54, IOM, Bishkek.

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o 이주노동자 증가와 함께 이혼율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무슬림 전통관행에 따라 결혼했다가 이혼한 여성의 경우 재산권 및 양육비 제공에 제한을 받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방치되고 있음.[41]

-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 일자리소개, 직업기술훈련 등이 현지에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체계를 마련하고 비자 및 취업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가 이주 정책 및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가계조사 및 행정데이터 분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세계 14위의 송금지급국으로서 송금액의 개발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과 주요 송출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송금개발효과 극대화 사업에 주목해야 함.

- 2014년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는 179만 8천여 명에 달하며, 한국發 해외송금은 95억 5천만 달러로 ODA 규모(18억 5,700만 달러)의 5배 이상에 달함.

o 한국 체류 외국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2~2014년 사이 24.4% 가량 증가함. 중앙아시아 3개국 인구 수 또한 같은 기간 26.0% 증가하여 2014년 기준 4만 7,815명을 기록함.[42]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發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에게 송금액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한 창업·기술훈련과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귀국 후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또한 한국의 주요 송금수취국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과 '개발을 위한 혼합금융'의 사례에서처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송금의 개발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
-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와 송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43]'에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바, 이주노동자와 해외송금에 대한 정책 마련 시 이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제3차 개발재원총회 결과문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4A)'은 [국제이주]와 관련하여 인권존중을 바탕의 안전한 이주 보장, 이주노동자와 난민 자녀들에 양질의 교육 제공, 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권 보호, 인신매매 및 외국인 혐오 척결 등을,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이주자와 가족들에게 적절하고 알맞은 금융서비스 제공, 송금액 평균거래비용을 거래금액의 3% 이하 보장, 저렴하고 빠르고 안전한 송금 촉진, 정보 수집 개선 등을 포함함.

o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금융서비스와 각종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송금서비스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KIEP

41) 매해 타지키스탄에서만 14,00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배우자와 SMS 등을 통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남. IOM에 따르면 기혼 이주노동자 3명 중 1명이 이혼했으며 이는 공식적인 서류등록 없이 무슬림 전통 관행에 따라 결혼이 가능한 문화적 배경이 크게 작용함. 중앙아시아에서 이혼여성의 재혼은 거의 불가능(Irina Malyuchenko(2015. 2), "Labour Migration from Central Asia to Russia: Economic and Social Impact on the Societies of Kyrgyzstan, Tajikistan, and Uzbekistan," Central Asia Security Policy Briefs #21).

42) 2014년 기준 인원수(2012~2014 증감률): 카자흐스탄 3,865명(47.6%), 키르기스 3,472명(19.9%), 타지키스탄 491명(32.7%), 투르크메니스탄 43명(16.2%), 우즈베키스탄 43,852명(26.4%). KOSIS 국가통계포털(검색일: 2016. 7. 5).

43) 2030년까지 빈곤 종식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지침으로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최종 채택.